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길순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수로

The Effect of Worker-to-home Compatibility on the Satisfaction of a Spouse: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Assistance

Gil-Soon Park

Ph. 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ch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 자료 중에서 10차년도(2017년)까지 표본이 유지된 취업모 72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분석과 정규성 검증을 위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방법을 활용하였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은 배우자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보였다($\beta=.164, t=4.078, p<.01$). 둘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은 배우자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beta=-.134, t=-3.438, p<.05$). 셋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이 배우자만족도와 사회적 지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취업모, 일·가정 양립 이점요인, 갈등요인, 사회적 지원, 배우자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l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process of the effect of working mother compatibility on spouse satisfaction. To that end, 727 employed workers who were kept samples until the 10th year (2017) were analyzed out of the data from the Korea Children's Panel Survey. Data analysis was performed for frequency analysis and regularity verification, and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ere performed. In addition, the three-step method of Baron & Kenny (1986) was used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results of the verific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advantages of working mothers' work-in-home compatibility have had a static impact on their spouse satisfaction($\beta=.164, t=4.078, p<.01$). Second, the conflict between working mothers and their families has shown an amulet (-) impact on their spouse satisfaction($\beta=-.134, t=-3.438, p<.05$). Third, the partial sell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verified in the process of the effect of the factors of conflict and advantages of working mothers on their spouse satisfaction.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compatibility of working mothers with working families suggeste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ograms to enhance spous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Key Words : Working Mother, Work-to home good, Work-to home conflict, Social Support, Marriage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Gil-Soon Park(parkgs3746@daum.net)

Received November 8, 2019

Revised January 3, 2020

Accepted January 20, 2020

Published January 28, 2020

1. 서론

우리 사회는 이혼 등의 이유로 가족 해체가 높아지면서 결혼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배우자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우자만족도는 결혼 당사자의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통해서 가능하며, 일과 가정에서 건강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인이다. 우리 사회의 기혼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의 사회적 분위기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온전한 역할수행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만 15세 이상 여성인구는 2,284만 명이며,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1,189만 명으로서, 경제활동참가율이 52.9%에 이르고 있다[1]. 특히 2018년 기준 기혼여성 취업자는 554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을 경험한 취업모는 208만 명으로 기혼여성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실정이다[2]. 기혼여성의 취업자는 대부분 자녀의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으며, 이는 경력단절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 이는 취업모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가정을 함께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 부딪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4].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다양성에 의해 취업모는 증가하고, 그 중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운 문제는 개인의 문제와 함께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취업모가 일·가정 양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5]. 또한 정부와 기업은 취업모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신출산, 돌봄, 유연근로, 일하는 문화, 기타 평등기회에 있어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2]. 이렇듯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6]. 나아가 취업모의 자기개발에 대한 강한 욕구가 일·가정 양립을 이끌어가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7]. 취업모가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일·가정 양쪽의 지원을 받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논의의 한 방편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취업모가 일·가정 양립 속에서 자신의 이점을 확보하고[8], 배우자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취업모의 배우자만족도는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다양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배우자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취업모의 삶에서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배우자만족도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고 본다.

취업모의 배우자만족도는 결혼한 이후 일상생활에서 배우자에 대한 주관적 감정·태도를 의미한다[10]. 즉 결혼생활에 대해 배우자로서의 상대방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말한다[9].

우리나라의 배우자만족도는 남성이 여성에게 느끼는 만족도는 71.3%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느끼는 만족도는 58.5%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5]. 또한 남편이 아내보다 배우자만족도가 높다는 연구[11], 남편의 배려가 많을수록 배우자만족도가 높다는 연구[12]에서 보듯 아내가 남편보다 배우자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배우자만족도는 결혼만족도, 부부관계만족도 등의 개념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13], 이와 관련된 연구는 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14,15].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일과 가정 내에서 배우자만족도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연구하고 있다[16-19].

이러한 배우자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동향은 연구대상을 기혼여성으로 한정된 경우[4,7,9,20-22]와 기혼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11-13,16-19]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에서 배우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특성에 관한 연구[11,17,23]와 부부갈등, 여가, 배려 등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12,16-19,23]가 보고된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9,13,20]도 보고되었다. 이어서 취업여부에 따른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2,24]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에서 배우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자녀 유무, 배우자의 학력, 직업, 경제상황, 종교 등과 배우자의 상호작용으로 의사소통, 성만족도, 가사역할분담 등과 같은 요인들이 배우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렇듯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 시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으로 취업모의 배우자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 선행연구를 토대로 취업모가 일·가정 양립 시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가한 취업모가 자녀에 대한 인식에 따라 이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독립변인이

배우자만족도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원을 매개변수로 활용한 것은 독립변수의 요인들이 긍정적, 부정적으로 작용할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의 관계에 따른 배우자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일·가정 양립과 사회적 지원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를 일·가정 양립으로 선정하며 하위요인으로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으로 취업모가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취업모는 일을 통해 자신감이 생기며 자녀에게도 더 좋은 어머니라고 느끼는 것 등이 이점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8]. 취업모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민감성과 따뜻함, 보육의 질 등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25]. 취업모의 일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8,26,27]보다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결과[2]가 많지 않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 시 이점요인은 배우자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일·가정 양립은 취업모로서 일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거나, 힘든 일로 인해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렵다는 죄책감을 갈등요인으로 본다[8]. 부부는 갈등요인으로 해당하는 학령 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큰 위기를 직면하며 결혼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9].

그리고 갈등요인은 기혼여성의 배우자만족에 있어서 취업은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22], 취업모의 56.1%가 자녀양육문제로 인해 퇴사를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취업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3]. 이렇듯 갈등 요인은 취업모가 일을 그만두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로[6]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배우자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9]. 이는 취업모가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경우, 시간 부족의 이유로 상대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한다는 연구결과들로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고충으로 작용

한다[25,28].

매개변수로서 사회적 지원은 취업모가 함께 살지 않는 친구, 인척, 지인들로부터 낙심하거나 우울로 인해 대화상대가 필요한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그리고 몸이 아파 집안을 부탁해야 할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지원 비율이 조금 높다고 한 발표[5]와 가족, 친지, 친구로부터 정서적·정보적·물질적 지지를 받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29]에서 보듯이 취업모에게는 사회적 지원이 배우자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배우자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취업유무에 따른 여성의 현재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소에 관한 연구[22], 학령기의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사회관계망의 구조 및 기능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것이다[21]. 즉, 취업모의 배우자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에 따라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관점은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하여 배우자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갈등요인이 높더라도 사회적 지원의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로 인하여 배우자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선행연구에서 배우자만족도에 대해 특정 지역, 포괄적인 대상에 치중한 것에서 벗어나 대표성을 지닌 아동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하위요인인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까지 배우자만족도에 중요하게 여긴 다양한 특성의 영향력에서 대표성 있는 조사자료에서 검증하였다. 나아가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부족한 일·가정 양립 시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이 배우자

- 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 둘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이 배우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셋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이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하여 배우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취업모의 일·가정양립 시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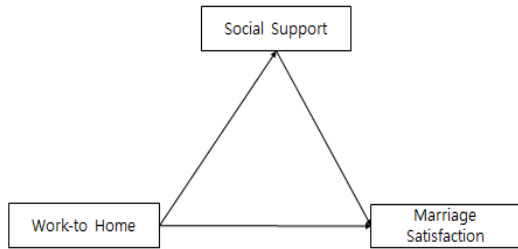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한국아동패널연구 10차년도 자료에서 2017년 10차년도까지 표본이 유지된 취업모 72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한국아동패널연구의 2008년도 1차 조사에서 2,150명의 신생아가구를 표본 추출하였으며 표본추출방법은 층화다단계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에 대한 척도는 Marshall, M. L. & Barnett, R. C.[30]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연구진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에 관한 척도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내가 일을 함으로써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감사히 여기게 한다',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양립 시 이점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파악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835로 높게 나타났다. 각 질문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이루어졌다.

2.3.2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

일·가정 양립 시 갈등요인에 대한 척도는 Marshall, M. L. & Barnett, R. C.[30]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연구진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에 관한 척도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자녀에게 부담 주는 것 같다', '내가 일을 하는 동안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한다', '내가 일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 내가 하고자 했던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렵다', '내 자녀에 대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일의 업무가 방해 된다', '내가 일을 하면서 어머니로서 받는 보상을 놓치게 된다', '내가 일하느라 힘들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렵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갈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척도의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876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질문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졌다.

2.3.3 배우자만족도

배우자만족도에 대한 척도는 Chung, H[31]이 개발한 KMSS를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수정한 RKMSS를 한국아동패널에서 이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배우자만족도 척도는 결혼에 대한 만족감을 묻는 문항으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하는 배우자인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결혼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배우자인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자녀의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이며,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만족'으로 설

계하였다.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파악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93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3.4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Lee[32]가 개발한 척도로 응답자가 함께 살지 않는 친구, 외가, 식구, 지인들로부터 받는 도움에 관한 질문으로서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 준다',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 체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질문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이며,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설계하였다.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94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자료 분석 방법은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시 배우자만족도와 사회적 지원에 관련된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과 상관관계,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SPSS 1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주요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 첨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인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원, 종속변수인 배우자만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3단계 검증 방법을 활용하였다. 넷째,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자녀의 성별은 '남학생'이 375명(51.6%), 여학생 352명(48.4%)이며, '모 연령'은 '30대' 350명(48.1%), '40대 이상' 369명(50.8%)으로 40대 이상이

더 높았다. '부 연령'은 '30대 166명(22.8%)'이며 '40대 이상' 553명(76.1%)으로 40대 이상이 더 높았다. 모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283명(38.9%)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학교 졸업'이 198명(27.2%) 순이다. 부의 '교육수준'은 '4년제대학교 졸업'이 307명(42.2%)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189명(26.1%)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로 응답한 대상자가 320명(44%)으로 가장 높았다. 월수입은 '500만원이상'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437명(60.1%)으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400만원에서 500만원이하'가 124명(17.1%), '300만원에서 400만원이하'가 74명(10.2%), '300만원이하'가 47명(6.5%)으로 분포되어 있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 Classification | | N | % |
|---------------------------|---------------------------|-----|------|
| Child's Gender | Male | 375 | 51.6 |
| | Female | 352 | 48.4 |
| Mother's Age | Under 40 | 350 | 48.1 |
| | Over 40 | 369 | 50.8 |
| Father's Age | Under 40 | 166 | 22.8 |
| | Over 40 | 553 | 76.1 |
| Mother's Education | Under high school | 185 | 25.4 |
| | College | 198 | 27.2 |
| | University | 283 | 38.9 |
| | Graduate School | 61 | 8.4 |
| Father's Education | Under high school | 189 | 26.1 |
| | College | 151 | 20.8 |
| | University | 307 | 42.2 |
| | Graduate School | 78 | 10.7 |
| | Missing | 2 | .3 |
| Mother's health condition | Not Health | 76 | 10.5 |
| | Average | 290 | 39.9 |
| | Good Health | 320 | 44.0 |
| | Missing | 41 | 5.6 |
| Monthly income | Less then 3million won | 47 | 6.5 |
| | 3million won~4million won | 74 | 10.2 |
| | 4million won~5million won | 124 | 17.1 |
| | More then 5million won | 437 | 60.1 |
| | Missing | 45 | 6.2 |

3.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병행 시 이점요인과 갈등요인, 배우자만족도, 사회적 지원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727)

| Variables | Min. | Max. | Mean | S.D. | Skewness | Kurtosis |
|-----------|------|------|-------|------|----------|----------|
| 1) | 1.00 | 5.00 | 3.600 | .623 | -.462 | .824 |
| 2) | 1.00 | 5.00 | 2.583 | .554 | .113 | -.394 |
| 3) | 1.46 | 5.00 | 3.913 | .901 | -.288 | .198 |
| 4) | 1.00 | 5.00 | 3.705 | .843 | -.966 | 1.325 |

1) work-to home good 2) work to home conflict 3) social support
4) marriage satisfaction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sd)를 분석한 결과,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은 평균값이 3.600(표준편차=.62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은 평균값이 2.583(표준편차=.554)으로 낮음을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의 평균값은 3.913(표준편차=.901)으로 높음을 볼 수 있으며, 배우자만족도는 평균값이 3.705(표준편차=.843)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 사회적 지원, 배우자만족도 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에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보다 작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

3.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 상관분석은 Table 3과 같다. 취업모의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 variables | coefficient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1) | 1 | | | | | | | | | |
| 2) | -.001 | 1 | | | | | | | | |
| 3) | -.009 | .463** | 1 | | | | | | | |
| 4) | -.039 | -.039 | -.029 | 1 | | | | | | |
| 5) | -.017 | -.063 | -.035 | .637** | 1 | | | | | |
| 6) | -.027 | .001 | -.033 | .047 | .087* | 1 | | | | |
| 7) | -.006 | .016 | .004 | .331** | .321** | .082* | 1 | | | |
| 8) | -.031 | .011 | -.007 | .060 | -.015 | .161** | .101** | 1 | | |
| 9) | -.002 | -.039 | .007 | -.013 | .009 | -.175** | .032 | -.316** | 1 | |
| 10) | .036 | .138** | .057 | .061 | .021 | .112** | .137** | .306** | -.211** | 1 |
| 11) | -.060* | .063 | .040 | .160** | .143** | .229** | **209 | .238** | -.204** | .185** |

1) Child's Gender 2) Mother's Age 3) Father's Age 4) Mother's Education 5) Father's Education 6) Mother's health condition
7) Monthly income 8) work-to home good 9) work to home conflict 10) social support 11) marriage satisfaction

3.4 위계적 회귀분석 검증결과

본 연구는 주요변수인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 사회적 지원이 취업모의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일·가정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 사회적 지원, 배우자만족도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본 결과 기준치인 0.80이상 되는 변수는 없었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종속변수인 배우자만족도와 상관성에서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r=.238, p<.01$), 사회적 지원($r=.185, p<.01$)과는 정(+)의 상관성을 보였고,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r=-.204, p<.01$)과는 부(-)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배우자만족도는 높아진다는 것이며,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이 높을수록 배우자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r=-.316, p<.01$)은 부(-)의 상관성을, 한편으로 사회적 지원은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r=.306, p<.01$)과는 정(+)의 상관성을, 갈등요인($r=-.211, p<.01$)과 부(-)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 요인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이 높다는 것이며, 갈등요인은 낮아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5, p<.01$).

각 단계에서 투입된 변수들은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와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사회적 지원 변수를 투입하였다.

Table 4에서 살펴보면 통제변수를 통제하고 일·가

정 양립 시 이점요인을 투입한 1단계에서는 취업모의 주관적 건강상태($\beta=.250, t=6.786, p<.001$), 월수입($\beta=.129, t=3.336, p<.001$), 일·가정 양립 시 이점($\beta=.192, t=5.201, p<.001$)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취업모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월수입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이 높을수록 배우자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1단계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17.8% 정도 설명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통제하고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을 투입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은($\beta=-.141, t=-3.714, p<.001$) 취업모의 배우자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이 높을수록 배우자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1단계에서 투입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beta=-.077, t=-2.149, p<.05$)은 배우자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주었고, 주관적 건강상태($\beta=.233, t=6.368, p<.001$), 월수입($\beta=.144, t=3.736, p<.001$), 일·가정 양립의 이점($\beta=.152, t=3.986, p<.001$)요인은 배우자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2단계에서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은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19.6% 정도 설명하고 있으며, 변화된 설명력은 1.8%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3단계에서는 사회적 지원 변수를 투입함에 따라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beta=.078, t=2.026, p<.05$)은 배우자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보였다. 이는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배우자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1단계, 2단계에서 투입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아동 성별($\beta=-.082, t=-2.268, p<.05$),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beta=-.133, t=-3.496, p<.001$)은 배우자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주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beta=.230, t=6.293, p<.001$), 월수입($\beta=.134, t=3.472, p<.001$),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beta=.132, t=3.372, p<.001$)은 배우자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3단계에서는 사회적 지원 변수는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20.1% 정도 설명하고 있으며, 변화된 설명력은 0.5%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개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기여도,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 이점요인, 사회적 지원의 순으로 높았다.

결론적으로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이 낮을수록 배우자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 사회적 지원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Marriage Satisfaction

| variable | Model 1 | | Model 2 | | Model 3 | |
|---------------------------|---------------|--------|-----------------|--------|-----------------|--------|
| | B(β) | t | B(β) | t | B(β) | t |
| (constant) | 1.490*** | 6.948 | 2.057*** | 7.860 | 1.747*** | 5.776 |
| Child's Gender | -.114(-.071) | -1.940 | -.125(-.077)* | -2.149 | -.132(-.082)* | -2.268 |
| Mother's Age | .116(.072) | 1.754 | .108(.067) | 1.651 | .090(.056) | 1.372 |
| Father's Age | .023(.012) | .298 | .024(.013) | .317 | .028(.015) | .362 |
| Mother's Education | .068(.080) | 1.660 | .069(.080) | 1.692 | .068(.079) | 1.668 |
| Father's Education | .039(.047) | .993 | .035(.043) | .912 | .036(.043) | .916 |
| Mother's health condition | .303(.250)*** | 6.786 | .284(.233)*** | 6.368 | .280(.230)*** | 6.293 |
| Monthly income | .117(.129)*** | 3.336 | .131(.144)*** | 3.736 | .122(.134)*** | 3.472 |
| work-to home good | .223(.192)*** | 5.201 | .184(.152)*** | 3.986 | .160(.132)*** | 3.371 |
| work-to home conflict | | | -.147(-.141)*** | -3.704 | -.139(-.133)*** | -3.496 |
| social support | | | | | .109(.078)* | 2.026 |
| R2 | .178 | | .196 | | .201 | |
| R2change | .178 | | .018 | | .005 | |
| Adjusted R2 | .168 | | .184 | | .188 | |
| F change | 16.981 | | 13.718 | | 4.106 | |
| Durbin Watson | | | 1.993 | | | |

*p<.05, **p<.01, ***p<.001.

Table 5.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 variable | Step 1 | | Step 2 | | Step 3 | |
|-----------------------|-----------------|--------|-----------------------|--------|-----------------------|--------|
| | social support | | marriage satisfaction | | marriage satisfaction | |
| | B(β) | t | B(β) | t | B(β) | t |
| (constant) | 3.309*** | 20.840 | 3.238*** | 14.141 | 2.728*** | 9.469 |
| Mother's Education | .237(.266)*** | 7.199 | .238(.194)*** | 4.993 | .200(.164)*** | 4.078 |
| Child's Gender | -.096(-.127)*** | -3.427 | -.152(-.144)*** | -3.705 | -.141(-.134)*** | -3.438 |
| work-to home good | .237(.266)*** | 7.199 | .238(.194)*** | 4.993 | .200(.164)*** | 4.078 |
| work-to home conflict | -.096(-.127)*** | -3.427 | -.152(-.144)*** | -3.705 | -.141(-.134)*** | -3.438 |
| social support | | | | | .157(.112)*** | 2.892 |
| R | .329 | | .275 | | .295 | |
| R2 | .108 | | .076 | | .087 | |
| F | 43.977*** | | 27.625*** | | 21.405*** | |

*p<.05, **p<.01, ***p<.001

3.5 매개모형 검증

3.5.1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 검증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요인이 사회적 지원을 매개하여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과정을 활용하였다. 각 단계에 투입된 변수들은 1단계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요인을 투입하여 사회적 지원 변수를 검증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을 투입하여 배우자만족도를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요인, 사회적 지원 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배우자만족도를 검증하였다.

Table 5에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요인을 투입한 결과,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beta=.266, t=7.199, p<.01$)은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갈등요인($\beta=-.127, t=-3.427, p<.01$)은 사회적 지원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즉,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높다는 것이며, 갈등요인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낮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2.9%로 높게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을 투입하여 배우자만족도를 검증한 결과,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beta=.194, t=4.993, p<.01$)은 취업모의 배우자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갈등요인($\beta=-.144, t=-3.705, p<.01$)은 배우자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배우자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7.5% 정도이다.

3단계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원을 동시에 투입하여 배우자만족도를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beta=.164, t=4.078, p<.01$)은 배우자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갈등요인($\beta=-.134, t=-3.438, p<.05$)은 배우자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주었으며,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원($\beta=.112, t=2.892, p<.01$)은 배우자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원은 독립변수인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 갈등요인이 종속변수인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 사회적 지원, 배우자만족도 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회귀계수가 2단계의 $\beta=.194, \beta=-.144$ 에서 3단계에서 $\beta=.164, \beta=-.134$ 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은 사회적 지원을 부분매개하여 배우자만족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6.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 Path Between Variable | Z | p |
|---|-----------|------|
| work-to home good→social support→ marriage satisfaction | 2.2941*** | .001 |
| work-to home conflict→social support→ marriage satisfaction | 2.3041*** | .001 |

***p<.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

과 갈등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이들 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연구 2008년도 1차조사에서 2,150명의 신생아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2017년 10차년도까지 표본이 유지된 취업모 727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 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1>을 분석하였다. 이에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시 이점요인이 높을수록 배우자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25-27] 등 선행연구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를 위한 정부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07)을 개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것은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신출산, 돌봄, 유연근로, 일하는 문화, 기타 평등기회에 있어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으로 작용하여 배우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2].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잘 수행하여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취업모가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지원을 받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도움을 주며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 실천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시 이점요인과 관련된 재원과 사회적 측면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취업모를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를 분석하였다. 이에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이 높을수록 배우자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3,9,22,25,30]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갈등요인이 높다는 것은 일·가정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갈등요인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취업모가 일·가정에서 양립하는 특성으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이해하고,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

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과 정책적 협의를 통해 취업모가 가정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일에서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 한다. 이어 유연성을 높이는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녀 돌봄 서비스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증설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이 사회적 지원을 매개하여 배우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을 검증하였다. 이에 사회적 지원이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 갈등요인과 배우자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원이 배우자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밝힌 연구[9,21,22]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남성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밝힌 연구[29]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34]는 사회적 지원이 배우자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한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과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선행연구의 부재로 인해 실증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지원이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 갈등요인과 배우자만족도 간을 매개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이 배우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매개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취업모의 친가, 인척, 지인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업모가 일·가정 양립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정책적, 실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지원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난 발표[2]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취업모가 지역사회의 종교기관과 민간사회단체를 통한 상담과 관계 맺기와 같은 정서적 지원을 담당할 프로그램을 권장하는 것도 방편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위험을 대비한 주거, 의료, 생활, 교육 정책을 촘촘히 설계하고 홍보하여 가입시키며, 물가의 안정과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끝으로 통제변수인 아동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월

수입 등은 취업모의 배우자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취업모의 자녀가 여자일 수록, 취업모가 건강할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배우자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취업모의 자녀문제, 건강문제, 수입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배우자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교육정책, 의료보장과 일자리에서의 고용안정성, 유연성 등에 정부와 기업의 배려와 지원이 현실적이고 장기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는 취업모를 연구한 [9,23,33]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으로 구분하여 취업모에 있어 배우자만족도를 높이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더불어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이라는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사점과 함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을 패널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취업모가 일·가정 양립에 있어 자녀만을 파악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자료에 의한 횡단연구를 통해서 취업모의 배우자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취업모는 일·가정 양립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조사 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종단연구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취업모의 배우자만족도에 대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 사회적 지원 등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9). *2018 Social Population Survey*.
- [2] Statistics Korea. (2018). *2018 Work-Family Balance Indicator*.
- [3] S. N. Yang & C. S. Shin. (2011). Work-Family Conflict, Work-Family Reconciliation, Challenges of Working Mothe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3), 70-103.
- [4] J. H. Keum & D. S. Kim. (2014). Original Article :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the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care, Job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12(2), 15-34.
- [5] 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 *2018 The Life of a Woman by Statistics*.
- [6] M. J. Jung & S. H. Lim. (2016). A Study on Female Workers' Recognition and Utilization about Work-Family Balance Support Policy. *Industry promotion research*, 1(2), 41-47.
- [7] Y. J. Han, & J. A. Park & N. H. Sohn. (2013). Relationships of Work-Family Conflict and Enhancement Among Korean Working Mothe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2), 1443-1468.
- [8] H. N. Lee & J. W. Han. (2018). The Actor Effect and the Partner Effect of Gain and Strain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erceived by Dual-income Parents on Parent's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7), 231-238.
- [9] S. Y. Im. (2016). The Effects of Married Working Women's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Women's Research Institute*, 19, 35-64.
- [10] J. F. Longress. (1990).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Itasca, IL.: F. E. Peacock Publishers, Inc.
- [11] H. M. Kim & J. Y. Park. (2013). Study of Variable Factors Affecting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 Focused on the Related Variable of Myself and Partne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3), 125-140.
- [12] S. J. Kim, & Y. S. Chong. (2014). Relationships among Care for Spouse, Marital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middle-aged married couple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27-49.
- [13] E. K. Kim. (2001).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Role Conflict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Dual-Career Commuting Coup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3), 1-15.
- [14] R. Norton. (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141-151.
- [15] A. J. Roach., L. P. Frazier & S. R. Bowden.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3), 359-367.

- [16] Y. H. Kim & S. Y. Jeong. (2007). Marital Conflict and Satisfaction - The Moderating Effect of Conflict-Coping Strateg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5), 65-82.
- [17] H. K. Kim. (2013). Factors related to the Spousal Relationship in the Middle and Old age group: Focusing on marital statu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7, 63-83.
- [18] S. Y. Lee. (2013). The effect of Marital Conflict and Sexual Intimacy of middle and old-aged people on the Marriag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5(1), 181-205.
- [19] E. J. Kim.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Leisure Experiences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iddle Aged Couples*,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 [20] C. A. Jun & S. Y. Park. (1996). Research :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arital satisfac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4(5), 115-128.
- [21] E. H. Rhee & G. S. Yoo. (1999). Social networks,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with school children. *Yonsei Journal of Human Ecology*, 13, 95-107.
- [22] M. R. Kim. (2011). The Comparison of the Difference and the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of Women by Employment. *The Women's Studies*, 82(2), 69-101.
- [23] Y. J. Son & M. S. You. (2008). The Related Factor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in Working Marri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2(2), 143-154.
- [24] M. S. Shin & K. H. Ok. (2014). The Effect of Economic Hardship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Regarding Their Employment Status: The Mediation Effect of the Spouse's Household Labor and Shared Couple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9(1), 5-25.
- [25] E. Galinsky. (1999). *Ask the children: What America's children really think about working parents*. New York: William morrow & Co.
- [26] L. W. Hoffman. (1989).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 283-292.
- [27] H. J. Moon. (2009). Variables Affecting Peer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 Focus on Maternal Employment Statu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2), 57-69.
- [28] J. Williams. (2000). *Unbending gender: Why family and work conflict and what to do about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29] S. R. Kim. (2013). *A Study on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and Social Support of Korean Husbands from a Multicultural Family on their Marital Satisfaction*. The Graduate School Baekseok University.
- [30] M. L. Marshall & R. C. Barnett. (1993).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1), 64-78.
- [31] H. Chung.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32] H. S. Lee. (2000). *Marital satisfaction of the couple involved in the interaction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33] N. J. Kim. & T. H. Kwon. (2009). The Relation Between Work-Family Balance and Quality of Life for Married Women. *The Women's Studies*, 76, 43-70.
- [34] S. C. Kim.(2010).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Immigrant Women's Marital Satisfaction who Married to Korean Men*. Graduate School of Sungkyul University.

박길순(Gil-Soon Park)

[정회원]



- 2009년 2월 :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9년 8월 :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수료)
- 관심분야 : 노인, 가족, 다문화, 아동, 여성 등
- E-Mail : parkgs3746@daum.net